

21

기쁘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에스라 1장~2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에 잡혀간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70년 후 바벨론을 다스리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고레스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금이나 은, 짐승들을 주고 성전에 드릴 예물을 드리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편 126:3)



고레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 가축들과 많은 물건을 주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주었습니다.

또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귀한 그릇들과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기쁘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공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

다음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아래의 질문에 대해 보세요.

 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이 찻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시편 126:1~3)

1.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

- ① 하나님 ② 바사 왕 고레스 ③ 예레미야

2.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 기쁘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을 모두 찾아보세요. ()

- ① 자신이 살 집을 지었다.
②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다.
③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④ 농사를 지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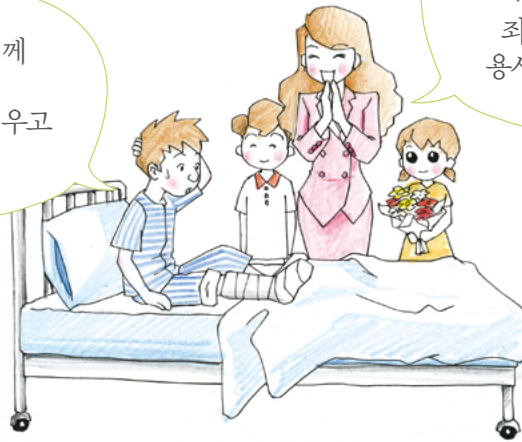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 다음 예화를 읽고 종일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종일이는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고 머릿돌도, 암송도 하기 싫다고 3주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늦잠 자고 친구들과 놀이공원도 갔으며 컴퓨터 게임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일이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발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종일이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시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단다.

🌸 종일이가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 종일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25:16)

여러분도 종일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면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예 화



* 예수님을 본다는 기쁨

크로스비는 어려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를 8,000곡 이상을 썼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14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20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434장) 등 많은 은혜로운 찬송 가사들이 다 크로스비가 쓴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크로스비가 앞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크로스비 양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저는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바라보는 얼굴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8세 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지금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
난

선생님
난